

인문·亞의식주·박물관... 마음 소양 쌓을 ACC 문화강좌 '풍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인문, 아시아 문화예술, 박물관 등 흥미로운 주제로 상반기 강좌를 운영한다. 먼저 3-6월 진행되는 'ACC 인문강좌'는 쇼펜하우어 열풍을 일으킨 강용수 박사를 비롯해 미국인에게 미국사를 가르친 김봉중 전남대 교수 등 인기 강사진으로 구성됐다. 또 오는 4-6월에는 아시아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ACC 아시아 문화예술교육'이, 오는 20일에는 ACC 소장품 전시를 한층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는 'ACC 박물관 교육'이 열린다. 봄을 맞아 더욱 풍성한 ACC 인문강좌와 교육을 소개한다.

강용수 박사 '쇼펜하우어 행복 철학' 강연부터 아시아 음식문화·공예 등 예술체험까지 '다채'

◇ACC인문강좌...인기 강사진 구성 '기대'
상반기 ACC 인문강좌는 '도시와 예술'을 주제로 3-6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ACC 극장3에서 열린다. 먼저 오는 27일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저자 강용수 박사가 '쇼펜하우어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자기 긍정과 행복을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오는 4월29일에는 스타 도슨트 정우철 작가와 함께 '화가 사랑한 빛'을 주제로 평생을 바쳐 살아온 빛의 움직임을 포착하려 노력한 화가들을 만나본다. 특히 모네와 르누아르 작품을 통해 그들이 담아내고자 했던 파리의 빛을 살펴본다. 오는 5월29일에는 '세상의 기원을 찾아가는 고고학 여행'을 주제로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와 함께 한



왼쪽부터 지난해 열린 ACC 문화강좌 '박물관산책', 인문강좌, 예술체험 '아시아를 새기다' 활동 모습. (ACC 제공)

조각의 유물이 고고학자의 지식과 학문적 상상을 통해 살아 있는 이야기가 되는 과정을 경험해 본다. 마지막으로 6월28일에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출연해 화제의 강의로 인기몰이를 한 김봉중 전남대 교수가 강연한다. 이날 김 교수는 '세 도시로 읽는 미국사'를 주제로 뉴욕·시카고·라스베이거스 도시 역사를 통해 미국 문명의 특징과 성격을 추적한다. 모든 인문강좌는 동시 수어통역을 진행하며, AC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지난해 '2023 ACC 인문강좌'는 총 8회 진행됐으며 5천951명(현장참여 1천188명, 온라인 생중계참여 4천763명)이 참여해 인기를 입증했다. ◇아시아 의식주 여행·아시아 예술로 초대 'ACC 아시아 문화예술 교육'은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 자료와 연계해 아시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ACC 아시아 의식주 여행'과 공예·문자를 통해 아시아인의 삶과 지혜를 체험하는 'ACC 아시아 예술체험'으로 구성됐다. 먼저 'ACC 아시아 의식주 여행'은 음식문화 저술가가 강의하는 문화체험 교육으로, 4-6월 둘째주 화요일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에서 총 6회 진행된다. 윤덕노 음식문화 저술가가 강연자로 나서 그간 쌓아온 세계 식문화 기록을 자료로 '아시아 과일 로드'를 진행한다. 아시아문화박물관 '천일야화' 전시 소장품 자료 등과 연계해 서남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한다. 'ACC 아시아 예술체험'으로 개설한 '아시아 공예'와 '아시아를 새기다' 강좌는 아시아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는 교육으로, 4-6월 오후 강좌와 저녁 강좌로 나뉘어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에서 총 12회 진행된다. '아시아 공예' 강좌에서는 한국의 나전칠기 공예의 예술적 특징과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고 공예품을 만들며 아시아 공예의 가치를 실현해 볼 수 있다. '아시아를 새기다'는 아시아 문명 속 문자와 인장(印章)의 발전 과정, 전통 인장의 특성을 접하고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나만의 인장과 엽서를 만들어 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아시아를 이해해보는 시간이다. ◇ACC 소장품과 만나는 박물관 교육 ACC는 오는 20일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아시아 문화박물관 소장품 전시 연계-마나스'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의 소장품 전시인 '마나스'는 키르기스스탄 작가 아사날리예프 마이람쿨 무사바이와 독일 작가 테오도르 헤르젠이 마나스를 소재로 그린 작품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양민중 부산대 교수가 키르기스인의 3부작 서사시인 마나스-세메테이-세이테크 속 전설의 영웅 마나스와 중앙아시아 고전 역사에 대해 들려준다. 인문강좌, 체험 및 교육 참가비는 모두 무료로,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동구문화관광재단, 문체부 DMO 선정

'덕질살롱' 등 지속가능한 핵심관광 콘텐츠 개발 만전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 문창현·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4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Destination Marketing/Management Organization)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주민과 관광분야 이해관계자, 지자체 등이 협업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 수요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지자체와 관광전문기구 등 90여곳이 응모해 4.31대 1의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사업 기획 적정성과 타당성이 높은 22곳이 최종 선정됐다. 재단은 이번에 영월, 강진 등 10여곳의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신규 지원 DMO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DMO는 1-2년 차에 1억원, 3-5년 차 1억5천만원 등 최대 6억 5천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지역관광 추진조직별 맞춤형 사업 상담, 벤치마

킹, 홍보마케팅 등도 지원받는다. 재단은 이번에 선정된 DMO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증대', '관광자원 관리', '서비스 품질개선'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유입증대' 사업으로 20-40대 청년층을 핵심 타겟으로 한 취향여행 플랫폼 '덕질살롱'을 운영하고, '관광자원 관리' 사업으로 광주의 맛·멋·흥이 있는 '사람(지역주인)'을 핵심관광 콘텐츠로 발굴하는 '사람여행'을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 품질개선' 사업으로 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광주 가보자go'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민·관이 협력해 광주 동구의 관광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DMO사업 수행을 통해 동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G.MAP, '시민 아이디어 스케치' 공모전 시상식

백남준 특별전 연계 행사...대상 등 4개 작품 선정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지난 12일 시민 공모전 '백남준, 로그인을 할수록' 시상식을 성료했다. 이번 공모전은 G.MAP 미디어아트 특별전 '백남준: 사랑은 10,000마일' 개최를 기념, 백남준의 뜻을 이어받아서 민들에게 참여적 전시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백남준의 작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세상'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공모 기간 동안 총 67점이 출품됐으며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등 총 4개 작품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을 받은 정희진, 우수상 김예린 수상자가 참여해 수상 작품에 대한 소개와 소감을 나눴다. (사진) 이경호 G.MAP 센터장은 "백남준의 인간적인 모습과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고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시·노래·유머가 함께하는 '양석승 힐링콘서트'

22일 남구문화예술회관

한국 감성 충전&웃음 치료 연구소 양석승(전 광주대 교수·사진) 소장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제40회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가수 채호가 사회를 맡은 이날 공연은 가요 가수 안은경이 '흑산도 아가씨'와 '내 맘에 쏙' 무대로 서막을 장식한다. 가수 신동석의 '돌아가는 삼각지', '당신의 미소' 무대에 이어 양 소장인 '사랑은 눈물의 씨앗', '한 많은 대동강'을 들려준다.



이어 가수 선민균이 '당신이 최고야', '노래방', 가수 주진주가 '풍악을 울려라' 등 공연을, 가수 채호가 대금연주 '칠갑

산, 노래 '춘춘화살'을 들려주며 가수 김향은 '저 강은 알고 있다', '당신은 내사랑', 가수 손희종은 '추억의 소야곡'과 '울며 헤진 부산항' 무대를 펼친다. 또 가수 김성록은 '이력서', '누구없소' 공연을, 가수 전유정은 '황성옛터', '약장수'를, 가수 윤숙자는 '덴서의 순정'을 선사하며 가수 김현구의 '내장산', '가치마'를 끝으로 양 소장의 유머 퀴즈 및 행운권 추첨이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주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지방 지사	• 봉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신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8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